

일본의 경상적자는 고착화될 것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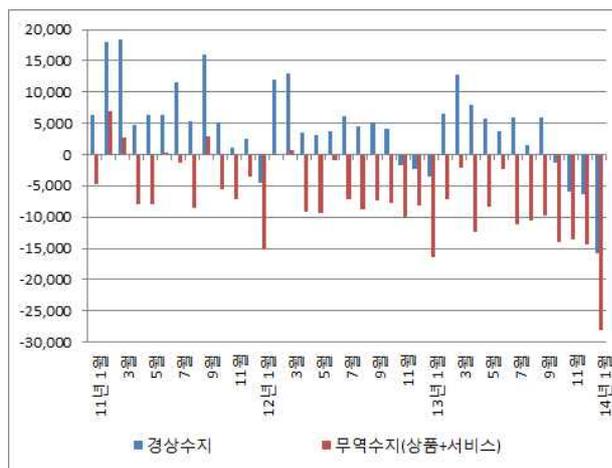
- 일본의 '14년 1월 경상적자가 1.5조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, 4개월 연속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적자에 이어 '쌍둥이 적자'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음
- 경상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역적자로 원전의 재가동과 수출이 확대되면 '14년 상반기에는 경상흑자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, 소비세 인상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상적자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음

□ 최초로 4개월 연속 경상적자 발생

-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'14.1월 경상수지는 전월('13.12월 경상적자 6,386억엔) 대비 약 2.5배 증가한 1조 5,890억엔의 적자로 과거 최대를 기록
- '13.10월부터 4개월 연속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상적자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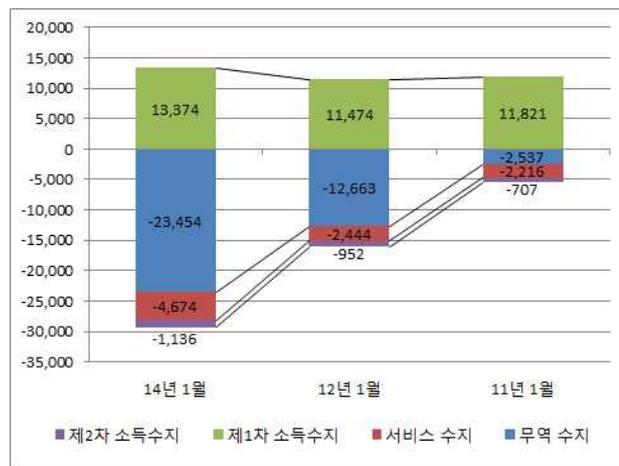
< 월별 경상·무역수지 추이 >

(단위 : 억엔)



< '14.1월 경상수지 내역 비교 >

(단위 : 억엔)



주 : 제1차 소득수지 = 본원소득수지, 제2차 소득수지 = 정부개발원조 등 경상이전수지

자료 : 재무성

-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LNG나 원유 등 연료 수입의 증가와 소비세 인상 전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및 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

- '14.1월 무역적자는 2조 3,454억엔으로 전년 동월('13.1월 무역적자 1조 384억엔) 대비 약 2.3배 증가한 과거 최대
 - * 수입은 7조 8,620억엔으로 전년 동월(6조 334억엔) 대비 30.3% 증가한 반면, 수출은 5조 5,167억엔으로 전년 동월(4조 7,264억엔)대비 16.7% 증가
- 여행, 수송 등 서비스 수지는 4,674억엔의 적자로 전년 동월(서비스 적자 3,389억엔) 대비 37.9% 증가, 해외배당금 등 제1차 소득수지는 1조 3,374억엔 흑자(전년 동월대비 8.6% 증가)로 5개월 연속 증가

□ 각계의 반응

○ 아베 총리

- “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의 성장을 흡수하면 무역 수지나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지고,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재생을 추진시켜 강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”

○ 스가 관방장관

- “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, 경상적자의 확대는 엔저가 원인이겠지만 국내경기 활성화에 의한 수입 확대라고 볼 수도 있다”

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

- “경상적자 확대는 원전 정지로 인한 연료의 수입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. 이 대로 가면 환경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”

○ 일본에서는 경상적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, 연간으로는 경상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

-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나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2~6월에는 다시 경상흑자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

- 또한, 건설기계나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'J커브 효과'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판단

* '14. 2월 1~20일 기간의 무역적자는 6,100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5% 감소, 수출은 14% 증가한 반면, 수입은 4% 증가

□ 시사점

- 원자력규제위원회는 3월 13일, 규슈 센다이(川内)원전 1, 2호기를 최우선 재가동 원전으로 지정, 이르면 여름에 운전을 재개할 예정
 - 한편에서는 원전이 재가동되어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제조업이 공동화되었기 때문에 무역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어 경상적자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
 - 다른 한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과 엔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아 일본을 더 이상 수출입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
- 일본 재무성은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면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, 재정적자에 이어 경상적자가 발생하는 소위 '쌍둥이 적자'에 대해 우려
 -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채무 잔고가 확대되고 있어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해외투자자의 국채 보유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동향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의 경상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언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 3. 10/11/12), 산케이신문(2014. 3. 13), JBPress(2014. 3. 11)